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경축행사와 모임 진행

개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9돐경축 제일본조선인총연맹대회가 14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장과 부의장들,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제일본조선상공연합회 회장, 조선대학교 학장, 총련중앙 고문들과 국장들, 제일본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총련본부 위원장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와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일본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또다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허종만의장이 전달하였다.

이 허종만의장의 보고가 있었다. 그는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제일본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주체위원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총련과 제일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렸다.

그는 해마다 태양절을 맞이하면 총련일군들과 제일본동포들을 자애로운 환포에 안아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더욱 그리워진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본땅에 끌려가 갖은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며 피눈물 흘리던 제일본동포들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나아가갈 길도 밝혀주시며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신데 대해 그는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애국위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 발전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일군들과 제일본동포들에게 안겨주시는 사랑과 은정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느라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정을 담아 총련과 제일본동포들에게 력사적서한과 축하문, 축진들을 거듭 보내주시며 새로운 주체100년대 총련사업을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고 격찬하였다.

총련일군들과 제일본동포들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을 총련의 전반사업에 구현하여 제일본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데로 철저히 지향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인정하였다.

그는 전체 총련일군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조국과 총련, 제일본동포들의 운명이요 미래이시라는 철칙의 신조를 깊이 간직하고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 높은신 권위를 견결히 옹위해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돌려주시신 한없는 사랑과 태양의 정을 삼키

피줄로 간직하고 어떤 시련과 난관도 정면돌파전으로 과감히 뚫고나갈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념원이었던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와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하며 일본인민들과의 우호친선을 위한 대외활동을 보다 힘있게 벌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총련의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일본조선인운동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제일본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자고 그는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축하문이 낭독되었다.

대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본사기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탄생 109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5일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길림속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인녀성협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지시부,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황백하가족, 길림지구협회 부회장 홍영순가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작품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청년협회 일군들, 중국인민지원군 로전사, 지원군렬사가 죽들, 재중동포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경축보고회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청년협회 회장들, 성원들, 로녕지구협회 산하조직대표들, 심양시 공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제1부의장은 보고에서 조국의 인민들이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열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9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의 태양을 높이 모신 대통운의 날이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자주시대의 령명을 안겨준 력사적사건의 날이라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회고하였다.

그는 한없이 고결한 총정과 도덕의리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조국방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력사가 끊임없이 수놓아지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조국인민들과 한 마음한 뜻이 되어 조국의 통성변영과 조국수호전에서 해외동포조직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두가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더욱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공화국공민의 본분을 다해나가고 호소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이어 영화감상회와 경축연회가 있었다.

한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 지구협회와 산하조직들, 충남지구협회, 목단강지구협회에서도 꽃바구니진정행사와 경축모임, 영화감상회, 좌담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본사기자

로씨야고통련에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씨야방방문 2돐에 즈음하여 로씨야고통련연합회(로씨야고통련)가 11일 로씨야고통련청사에서 경축모임을 진행하였다.

로씨야고통련 성원들과 동포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적련대성그루배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로씨야고통련 사무실에 모셔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이미작품을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경축모임에서는 김철성 로씨야고통련 위원장의 축하연설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류가 나아가갈 길을 개척하시으로써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었던 근로인민대중이 사회발전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자주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의 기치높이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동방에서 처음으로 되는 민주주의국가를 창건하시였으며 가렬치절하였던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셨다고 칭송하였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업적은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라고 그들은 확인하였다.

그들은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오늘 조선은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다고 격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씨야방방문을 계기로 조로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견대통령을 겸격하신 첫 상봉을 하신것은 조로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서 커다란 추동력으로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재로동포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태양절경축모임이 6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로씨야, 방글라데슈,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벨라루세, 적도기네, 리비아에서 진행되었다.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모임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로씨야방방문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의 자유와 독립,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그에게 다함없는 경의를 드린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업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드림없이

본사기자

여러 나라에서

계승되고있다.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자티야당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로 내세우시고 그 존엄을 빛내여 주신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다. 그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해 끝없이 헌신하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숭고한 한생이라고 격찬하였다.

방글라데슈의 진보적정당들과 인민들은 조선인민이 김정은총비서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로씨야공산당 외스뜨롭드 주위원회 위원장,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국제비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자주시대 인류가 나아가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은 자주강국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기어 관철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벨라루세 위헝스크주체교육

했다. 벨라루세 위헝스크주체교육

학협회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시며 락열한 사상리론가, 실천가이시다.

그의 사상은 복잡한 사회정치적문제들에 명백한 해답을 주고 정의로운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공인되고 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아래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에게 지지와 련대성을 보인다.

로씨야,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에서 진행된 경축모임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올리는 축전들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태양절경축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1》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 명절에 즈음하여 경축의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태양절경축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1》이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태양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며 황홀한 빛의 세계를 펼쳐질 평양제1백화점과 주변의 장대재기들은 특색있는 조명축전을 관람하기 위하여 모여온 시민들로 초저녁부터 흥성이었다.

《빛의 조화-2021》의 제명과 《태양절》, 《4.15》라는 글발과 수자를 현시하며

신비한 빛의 예술이 시작되었다. 조명축전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펼쳐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자랑찬 모습과 창조와 건설로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어가는 인민들의 보람찬 투쟁과 삶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졌다.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기적과 번영의 시대를 독특하게 반영한 화면들은 건당, 건국, 건국의 력사적위업을 가장 빛나게 실현하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의강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다지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하였다. 축전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대중제일주의력사를 즐기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 소리가 나날이 높아가는 오늘의 시대상과 더 밝은 래일을 대형화상으로 변화무쌍하게 펼쳐보였다.

본사기자



자주로 빛나는 위인의 한생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날과 달이 흐르는 속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오늘 공화국은 자주로 존엄높은 나라로 지구상에서 빛을 뿌리고있다.

자주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성스러운 한평생을 관통하는 백승의 리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주와 자주로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자이시였다.

일찌기 10대의 시절에 자주적운동개척의 지도리념인 자주제사상을 창시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80평생 언제나 자주의 기치높이 민

족의 운명과 존엄을 수호하고 부강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애국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 옷이 아니라 오직 조선옷이 맞는다고 하시며 새 조국건설도 자주적인 로선과 방식대로 하고서 제국주의권력세력의 침공을 물리치는 조국해방전쟁도 다른 나라의 싸움방식이 아니라 조선식의 새로운 전법으로 싸워 20세기의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신 수령님이시다.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한치의 드림도 없이 자주의 한길로 조선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령도의 갈피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데를 발표하시려고 할 때였다.

당시 사회주의건설강령을 제시하는것은 공화국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었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이미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데를 준비하여오시였다.

그런데 1955년 초 온갖 기회주의자들은 레에서 도시수공업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겠다는데 대하여 이리저리 궁시비밀을 하였다.

그들은 레에서 언급된 농업협동화와 관련한 공화국의 정책에 대하여서도 아직까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조선선에서와 같이 아무런 물질적대도 갖추지 못한 조건에서 협동화를 해본적은 없

다고 하면서 반대해나섰다.

기회주의자들의 속심은 조선과 같이 혁명을 늦게 시작한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감히 레를 내놓을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었고 다음으로는 앞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이룩한 나라들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면 되는것이 무슨 다른 방식이 있을수 있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건설강령의 정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현실을 들어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레를 내놓는것이 무엇이 나쁘냐. 다른 나라에서 내놓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 식대로 해나가겠다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강령을 놓고 온갖 기회주의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불과 1주일만에 력사적인 《4월레제》를 세상에 발표하시였다.

이런 드림없는 자주의 신념과 불변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있었기에 전후 일부 나라들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며 《통합경제》를 운운할 때에도 수령님께서서는 우리가 같길은 우리가 안다고 단호히 배격하시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당면한 복구건설만이 아닌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우리 식의 독자적인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중공업과 농업에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요구와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굳게 믿고 내놓으신 독자적인 로선이였다.

당시 종파분자들이 기계에서 밤이 나오는지 하면서 독자적인 경제건설로선을 시비해나설 때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시고 주체적기공업의 튼튼한 토대를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중공업의 핵심인 기계제작공업의 강화발전

을 위하여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헌신의 자욱이 있어 이 땅우에는 그 무엇이냐 마음만 먹으면 척척 만들어내는 자립적인 기계공업이 마련될수 있었던것이다.

천리마대교조시기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며 고고성을 올린 《천리마》호차트랙도르, 《승리》호차트랙, 《붉은기》호차트랙기관차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 땅에 수놓이듯 일떠선 크고작은 공장, 기업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독자적인 경제건설로선이 얼마나 정당할것인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주제86(1997년) 6월 어느날 3대혁명전시관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하시 뜻깊은 교시가 오늘날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우리 인민들이 3대혁명의 기치밑에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료해하시면서 중공업에 관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와 같이 령도가 크지 않은 나라에서 이처럼 강력한 자립적인 중공업을 건설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공적이며 자랑할만 한 일이라고, 누구나 중공업에 와보면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신 아버지수령님의 업적을 실물로 보고 느끼게 될것이며 수령님의 위대성,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수 있을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진정 한평생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존엄과 위력을 떨치고 력사

의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행성에 빛을 뿌려올수 있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전 지국장은 《김일성주석은 민족자주를 앞세운 민족주의자였다고 말할수 있다. 외세의 지배로부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추구한것은 참으로 존경할만 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김일성주석은 진보적인류가 칭송하는 세계적인 수령이시다. 온 세계가 평가하는 국제적수령이 우리 민족의 령수라는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수령님을 높이 칭송하였다.

실로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혁명신조였고 혁명방식이였으며 혁명실천이였다.

이렇듯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혁명실천을 통하여 자주는 력사의 정의고 혁명의 승리라는것을 확증하시였으며 20세기 력사의 흐름을 자주의 길로 이끄시어 인민대중이 지배와 굴종에서 벗어나 자기 나라 혁명을 자주적으로 해나가는 자주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대와 교조, 지배주의가 만연하던 지난 세기에 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수령님의 절단도 참으로 위대하였지만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살판치는 그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 시종일관 자주적대를 굽히지 않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신 그의 혁명실천은 현대정치사에 특기할 기적중의 기적적인것이다.

위대한 자주정치로 공화국을 자주와 존엄의 나라로 되게 해주시고 세계의 자주화 위업수행에도 특출한 공헌을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업적을 부강번영하는 공화국의 력사와 더불어 무궁도록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4월 25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지 89돌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이다.

힘이 약해 외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땅속의 실음속에 살아오던 우리 겨레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으로써 자기의 진정한 군대, 인민의 혁명적주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일찌기 열네살 어린시절에 나라찾을 근듯을 품고 시고 혁명의 길에 나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발돋움지 무장한 강도 일제와는 무장으로 맞서싸워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진정한 조선의 새 군대,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다.

그이께서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이 없는 려악한 조건에서도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는 일제와의 전면대결전을 선포하실수 있는것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함께 자기 인민의 힘을 굳게 믿으셨기때문이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항일대전

의 날날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고 하시면서 유격대가 언제나 인민에게 의거하여 싸우도록 하시였다.

또한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밀린속에서 제 힘으로 연길폭탄도 만들어내고 무기들도 수리하면서 유격투쟁을 벌려나가도록 이끄시였다.

그이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독자적인 유격전법들은 일제를 공포와 전멸에 떨게 하였다.

통일전쟁전투, 로후산전투, 무송현전투, 보천보전투, 간삼봉전투, 무산지구전투, 서강전투, 홍기하전투, 대사하치기전투 등 대소전투들에서 왜놈들은 패전을 거듭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신묘한 전법에 일제의 《참비전술》, 《맹공장추전술》, 《요점배치전술》, 《포위소탕전》과 같은 《토벌》작전들이 무용지물로 되고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유격전으로 강대한 정규군을 타승한 혁명전쟁으로 세계전쟁사에 기록되게 되었으며 해방후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는데서 귀중한 경험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정규무력건설업무를 빛나게 실현하시고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인민군대를 영웅적인 군대로 되게 하시였다.

력량상 대비할수 없이 포악한 제국주의세력들과 맞서 유격전에서나 정규전에서도, 총포성능은 장기간의 대결에서도 언제나 승리만을 기록한 인민군대의 무훈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군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었다.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지난 세기 90년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오늘 조선인민군이 세계적 인 강군으로 더욱 빛을 뿌릴수 있게 된것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정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령장을 대를 이어 모시어 강군의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승리만을 떨쳐가는 공화국이다.

김 광 역

다원(圓)은 흙(土)의 따옴을 따와 수지꽃병과 금공예 《말》 친왕이 올린 선물들이다.

그는 캄보자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자기의 육체적정명을 지켜주시 위대한 수령님을 오래전부터 세계혁명과 세계사회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로, 절세의 위인, 만민의 아버지도 경모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그를 만나주시고 따뜻한 대화를 하시였다.

친선의 정이 넘치는 자리에서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은 위대한 수령님께 지성어린 선물들을

정중히 올리였다.

곤쟁이의 수지꽃병 결면에는 3송이의 아름다운 꽃과 나비가 형성되어있다.

금공예품은 화려하게 장식된 명과 세계사회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로, 절세의 위인, 만민의 아버지도 경모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그를 만나주시고 따뜻한 대화를 하시였다.

친선의 정이 넘치는 자리에서 노로돔 시하누크 친왕은 위대한 수령님께 지성어린 선물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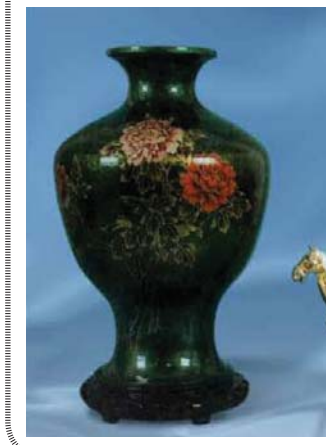
정중히 올리였다.

곤쟁이의 수지꽃병 결면에는 3송이의 아름다운 꽃과 나비가 형성되어있다.

금공예품은 화려하게 장식된 명과 세계사회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로, 절세의 위인, 만민의 아버지도 경모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친 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시기에 일본방 한복판에 민족교육의 최고전당인 조선대학교를 세우도록 해주시고 해마다 막대한 교육비용을 보내주시어 학생들이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배울수 있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조선대학교창립 30돌에 즈음하여 친히



바라내며 교정에 흘러드는 조국의 사랑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앞두고 창립 65돌을 맞는 조선대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축전을 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축전에서 조선대학교가 걸어온 지난 65년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력사를 돌이켜보시면서 조선대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앞으로도 충실성의 전통, 일심단결의 전통, 애국애족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 교수교양사업과 학과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세계유일의 해외교포대학, 민족인재양성의 원종장으로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라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하시였다.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들에게 더 마음쓰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사랑과 믿음을 담아 보내주신 축전을 받아안고 대학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이역땅에 아무리 사나운 광풍이 휘몰아치고 세상이 천백번 변한다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끝까지 충성다할 결의를 다지였다.

세상에는 수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조선대학교처럼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성과 민족성으로 일관된 자기의 교육강령을 가지고 해외교포운동과 조국의 부강번영에 특색있게 이바지하고있는 해외교포대학, 이역땅 한복판에 자기의 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며 동포자녀들을 공고한 정신과 애국애족의 넋을 지닌 우수한 민족인재들로 육성하는 대학은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조선대학교가 걸어온 65년의 력사는 종편의 후대교육사업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하늘보다 높고 태양보다 따사로운 숭고한 동포애, 민족애의 력사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전 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시기에 일본방 한복판에 민족교육의 최고전당인 조선대학교를 세우도록 해주시고 해마다 막대한 교육비용을 보내주시어 학생들이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배울수 있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조선대학교창립 30돌에 즈음하여 친히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60돛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2017년 4월, 도포에 있는 조선문화회관)

축하문을 보내주시고 대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재일조선인운동의 핵심공간으로 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온갖 은정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조선대학교를 총련의 간부양성기지, 민족인재육성의 원종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신혈을 바치시였으며 선군령도의 그로록 바쁘신 속에서도 제일조선인운동에서 조선대학교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밝혀주시고 막대한 배려금까지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이끄시는 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기념촬영의 영광도 안겨주시고 조국방문기간 학생들이 올린 소박한 편지도 보여주신 하해같은 은총을 베풀어주시였다.

5년전에는 조선대학교창립 60돌을 맞으며 교직원, 학생들이 예제 사랑의 축하문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축하문에서 조선대학교는 시대와

조국앞에 지닌 력사적사명과 본 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재일조선인운동의 핵심공간으로 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온갖 은정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조선대학교를 총련의 간부양성기지, 민족인재육성의 원종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신혈을 바치시였으며 선군령도의 그로록 바쁘신 속에서도 제일조선인운동에서 조선대학교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밝혀주시고 막대한 배려금까지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이끄시는 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기념촬영의 영광도 안겨주시고 조국방문기간 학생들이 올린 소박한 편지도 보여주신 하해같은 은총을 베풀어주시였다.

5년전에는 조선대학교창립 60돌을 맞으며 교직원, 학생들이 예제 사랑의 축하문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축하문에서 조선대학교는 시대와

고 감격하여 그이께 올린 편지에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은 이렇게 했다.

《우리들은 조선대학교를 새로운 도약기대로 떠밀어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어린 축전을 늘 가슴에 새기고 이역땅에 아무리 사나운 광풍이 휘몰아치고 세상이 천백번 변한다 해도 오로지 주체조선의 태양이신 김정은원수님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충성다하겠습니다.》

태양의 빛발이 흘러넘치는 교정에서 사업한다는 긍지높이 조선대학교의 교직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 어떤 명이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졸업생들도 애국애족의 계주봉을 이어 제일조선인운동발전에 핵심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세계에 유일무이한 해외교포대학인 조선대학교야말로 공화국과 조선민족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귀중한 재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뜨거운 정을 기울이시며 은혜로운 손길로 따뜻이 보살펴주시기에 총련 핵심육성의 원종장인 조선대학교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김철진



4월 남북연석회의가 진행된 평양의 모란봉극장

역사적인 민족적 회합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열린

의 대안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적인 민족적회합이었다. 해방후 강도의 침략행위에 의해 우리 나라에는 민족분열의 위기가 조성되게 되었고 우리 민족은 통일이나, 분열이나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이 엄혹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분열의 위기를 막고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로서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의 연석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연석회의소집에 앞서는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와 그 추종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단호히 저지파란시키고 나라의 완전독립을 이룩하려는 온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겨레의 폭풍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그 어떤 주의주장이나 재산의 유무, 출신성분과 경력, 과거의 행적에 앞서 애국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남조선의 진보적인 정당, 단체인사들뿐 아니라 완고한 민족주의자들을 비롯하여 불미스러운 과거를 가진 인사들에게도 회의 초청장을 보내도록 하시었다. 조선의 특산인 하얀 비단 천에 것으로 한자한자 정성들여 쓴 북조선의 념원이 담긴 초청장들은 그대로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의 일어불은 가슴마다에 재생의 희망과 애국열을 불리일으키고 불빛이었고 황량한 들에서 방황하던 그들을 애국의 길로 인도해주는 구원의 손길이었다. 내외분열주의세력은 남조선의 각계층 인사들의 평양방문을 차단하기 위해 갖은 위협과 차단을 다하였다.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

지는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공산분자, 용공분자로 처형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 주자들은 국우익장들을 내몰아 방북인사들의 앞길을 막기 위해 시위와 통성놀이까지 벌려놓았지만 겨레를 통일애국의 길로 부르는 한없이 넓고 인자한 품을 찾아 남조선의 좌익, 중간은 물론 우익정객들도 저저마다 사선을 헤치고 평양길에 올랐다. 그들가운데는 해방전부터 공산주의라던 기를 쓰고 반대해왔고 해방후 남조선에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부의장, 《민주의원》 부의장, 《민족통일총본부》 부총재 등을 하던 김구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구의 마음속에 감춰진 애국의 넋을 중히 여기시고 그에게도 회의초청장을 보내도록 하시었다 주체37(1948)년 3월 몸소 그의 련락원을 만나 주시고 반공으로 일관된 지난날의 일은 다 백지화한다고, 과거불문의 원칙은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확립된 우리의 전통이라고 말씀해주시었다. 김구만이 아니라 김규식, 조소앙, 최동운, 엄항섭, 조완구, 김철송 등 당대의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도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에 공감하고 고매한 인품에 매혹되어 평양으로 찾아왔다. 마침내 주체37(1948)년 4월 평양에서는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 69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조선정치경제》라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신 데 기초하시어 미제의 민족분열책동을 반대하고 전조선적인 민주주의적통일정부를 수립하

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과업을 밝히시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남북연석회의에서는 《조선정치정세에 대한 결정서》와 《전조선동포들에게 격함》이라는 격문을 채택하였다. 결정서와 격문에서 조선인민은 《단독선거》에 의하여 꾸며지는 괴뢰정부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진정한 통일정부를 세울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으며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외세의 침략도구인 《유엔합시조선위원회》의 감시밑에 감행되는 남조선 《단독선거》를 저지파란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탕사기가 펼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적대회합이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일정한 합의를 이룩하여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벌리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었으며 통일애국력량이 이룩한 역사적인 첫 승리였다. 4월남북연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경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각이한 정치세력과 각계각층이 민족애국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온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하시고 지도하신 남북연석회의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단결을 파시한 애국적회합으로 역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리 라 연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4월 18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신지 23돛 되는 날이다. 이 로작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의 50돛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내주신 역사적인 서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전적로작에서 먼저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고 겨레의 조국통일위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을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경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서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그 실천적경험의 총화이며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민족적대단결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복이며 온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라고 천명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한

로작에서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혁명을 다시 있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이라는것을 명시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었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에는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하며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이룩하여야 한다는것을 비롯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 위한 관건담보이라고 하시면서 민족자주의 원칙이 민족문제해결의 핵이고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이며 애국애족과 애국배족, 통일로선과 분열로선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하시었다. 또한 애국애족의 정신과 고유한 민족적기질을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튼튼한 사상정신적기초라고 하시면서 조선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에 기초하여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로작에는 온 민족의 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근원을 철저히 없애는데 해서와 해내외의 동포들이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숭고한 리념을 안고 애랑과 접촉,

대화와 조직적인 련대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데 대해서도 밝혀주시었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이야말로 민족의 화합과 단합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며 그 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이 펼치실수 있는 위대한 민족대단결의 강령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로작은 투철한 민족자주의 원칙과 열렬한 애국애족의 일념, 강렬한 통일 의지로 일관된것으로 하여 내외의 일치한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키었다. 당시 서울과 부산,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의 거리들에는 《김정일장군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야 할 참다운 민족판이며 애국판이다》, 《김정일장군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는 내용의 대자보들이 나붙어 사람들을 크게 격동시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탁월한 조국통일사상과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마련하여 주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조국통일3대헌장과 더불어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기 위한 휘황한 진로를 밝힌 강령적지침이다. 또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또 한분인 백두산위인인인 김정일은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도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

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통일의 앞길에 의연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유훈을 받들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이 땅위에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 광 령

한평생 나라의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민족단합의 넓은 품에 안아 주신 사람들가운데는 완고한 반공분자로 알려졌던 김구도 있었다. 주체37(1948)년 3월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외세의 책동으로 민족분열이 고조될 위험이 닦쳐왔던 그때 남북연석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시고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층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도록 하시었다. 그이께서 제안하신대로 초청장을 만들던 일꾼들은 《김구》라는 이름에서 눈길을 멈추고 굳어졌다. 그들은 놀라움과 우려를 표시했다. 한것은 그가 공산주의자와는 도저히 화합될수 없는 완고한 반공분자로 낙인되고있었기때문이었다. 라국에서 생활하다가 해방후 남조선으로 돌아온 백범

김구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부의장, 《민주의원》 부총재 등을 하면서 반민주주의의 길로 나갔다. 김구의 휘하에 있던 우익세력은 그의 이름을 빌어 횡포한 백색테러까지 감행하였다. 김구는 위대한 주석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사상과 결출한 령도력, 숭고한 인덕에 완전히 매혹되어 그이를 절대적으로 숭배하면서 반공으로부터 련공합작으로 극적인 인성전환을 하게 되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4월남북

연락원을 먼저 평양으로 보내었다. 평양으로 가더라도 담보를 받고 가자는것이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이런 그를 닦하지 않으시고 연락원을 흔연히 만나시었다. 접견석상에서 그는 김구

의 의사를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장군님, 백범선생이 평양에 들어와서 장군님과 만나겠는데 과거를 백지로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간단치 않은 요구조건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석에서 패히 답변을 주시었다. 좋다, 백지다! 이렇게 되어 백범이 평양으로 오게 되었다. 그가 평양에 체류한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북의 현실을 돌아보면

여기는 1만세대 살림집 건설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고있는 수도의 송신, 송화지구. 예로부터 소나무가 많이 자라던 땅이라고 하여 송신이라 불리웠다는 이 땅에 오늘 거창한 건설의 교향악이 힘차게 울리고있다. 사방에서 울리는 호각소리, 그에 맞춰 여기저기서 움직이는 각종 료전기재들의 문중환 돌음, 방송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소리, 여기에 전투적기백이 차 넘치는 힘있는 구조들과 속도판들, 곳곳에 휘날리는 붉은기들... 하루가 다르게, 아니 시시각각으로 자기의 모습을 변모시키며 낮은 낮대로 온 평양시가 들쭉하게 건설격전장을 펼쳐놓고 밤은 밤대로 불꽃튀는 불야경을 이루는 송신, 송화지구는 그야말로 거대한 불도가니를 련상케 하고있다. 참으로 송신, 송화지구가 생겨 지금까지 있어본적 없는 천지개벽의 건설대격전이 벌어지고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적하던 이 땅이 언제 이처럼 자랑스럽게 자기의 얼굴을 높이 쳐들수 있었던가.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60여년간 일떠세운 거리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가. 천리마거리, 영평거리, 금성거리, 비파거리, 승리거리, 련락거리, 창평거리, 문수거리, 안상백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가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위대한선사의 로고에 의해 은하과학거리, 위성과학자출발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령명거리가 수도의 곳곳에 솟아올라 인민이 기뻐하고 세인이 부러워하고있다. 이제 송신, 송화지구에 새겨질 새 령사는 또 얼마나 가슴부듯한것인가. 현대적건축미를 자랑하는 1만세대의 고층, 초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들어앉게 될 그날이 금시 펼쳐지는 것만 같아 오가는 사람들 어깨춤 절로 나는듯 걸음세도 달라졌다. 지금도 착공의 그날 오늘은 우리가 첫삽을 뜨지만 이제 몇개월후이면 이 지역에 새로운 인민의 거리, 우리모

두가 자랑으로 여기게 될 최한한 대건축군이 솟아오르게 될것이라고 하시던 경에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귀전을 울린다. 정령 하늘을 찌를듯 우뚝 우뚝 솟아오른

이제 여기서 첫 걸음마를 맨 아이들이 락아소와 유치원을 거쳐 학교로 오고 행복이 넘쳐나는 집집의 창가마다에선 기쁨의 웃음소리 그칠새 없으리니 해마다 수도의 곳곳에 솟아올라 인

려명거리

본사기자 유급주

날로 변모되는 평양의 모습



민의 새 거리들과 함께 평양의 모습은 더욱 몰라보게 달라질것이다. 이 땅에 넘쳐나는 기쁨과 행복에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고 이 송신땅이 통채로 설레

이고있다. 낮이나 밤이나 오로지 인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해 마음 쓰시며 위민헌신의 길에서 기쁨과 락을 찾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온 나라 인민들은 머지않아 이 땅에 펼쳐질 평양의 새 모습과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유급주

권력쟁탈전의 희생물로 되고있는 청년층

남조선에서 보충선거 이후 여야당 모두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 소통을 강화한다 하면서 청년들을 자기들에게 끌어당겨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다.

보충선거에서 청년들의 표가 《결정적역할》을 했다는 분석에 따른것이라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지금 남조선에서 정치권에 대한 청년들의 환멸은 분노로 이어지고있다고 한다.

악성전염병사태와 극심한 경제난으로 하여 제일 쪼들리우고 고민속에 사는것이 청년들이다. 올해에만도 20대~3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1990년대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며 실업률은 25.1%로 높아졌다고 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빼앗긴다. 취업을 준비하다 갈 곳을 잃는다. (COVID-19) 시대의 청년실업은 어떤 모습인가. 경력은 보잘것 없고 모자라는 돈은 쥐꼬리만 하다. 소득은 당장 끊기는데 시간은 흘러간다. 업체안은 황폐하고 업체밖은 장막이다. 앉아서 기다릴지 뛰쳐나가 해야 할지 알수 없다. 위기는 중첩으로 몰아친다.》

러행업계 청년들의 실태를 소개한 이 글은 절대다수의 청년들의 처지를 반영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일자리가 없으니 돈이 없고 돈없으니 《내 집 마련》,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고 나중에는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하면서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남조선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자살을 시도한 청년은 하루 평균 27명에 달하며 이것은 지난해 2015년부터 5년간 두배로 증가한것이라고 한다.

특히 올해 1~8월 사이에 자살을 시도한 20대내성은 전체 자살시도자의 32.1%나 된다고 한다.

《헬조선》(지옥 《한국》)의 청년들은 《버려져지》(집 없이 올라 빈곤해진 무주택자), 《N포세대》(거의 모든것을 포기한 세대)로부터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삶포세대》(삶을 포기한 세대)로 전락된지 오래다.

남조선청년들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시작된 《수저계급》을 말하면서 《평범한 청년들은 흙수저가 아니라 조미세민지수저》이다. 《흙수저》는 수저를 들기라

도 하지만 《조미세민지수저》는 형제도 없다고 한탄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정치권이 청년문제에 관심을 돌리는척 하지만 문제는 청년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서인가, 아니면 권력쟁탈을 위한 정치적수단, 홍성물로 여기는가 하는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남조선보수세력은 지난해 보충선거에서 청년들이 자기들을 《지지》한것처럼 묘사하며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그러나 청년들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운운하는 《소통》이 어떤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청년정치》를 한다던 《국민의힘》의 청년위원회가 《한강 갈변합》, 《하나님의 통치가 립하는 나라》, 《땅개일보병》과 같이 청년들을 비하하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생을 맡기라고 선전하지 않았던가. 《국민의힘》내부를 보아도 이전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군소정당출신

등의 갈래갈래로 찢어져 매일 계파싸움이 치열하다. 내부소통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누와 소통한다는게 참 우습지 않은가.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청년문제는 심각한 사회적문제 일뿐아니라 정치적문제도 번져지고있다고 하면서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자들때문에 정치가 망쳐지고 미래가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있다고 개탄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광 혁

시정배들의 당권싸움

남조선에서 보충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내부의 갈등과 대립으로 복잡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보충선거까지 비상대책위원회체로 운영해오던 《국민의힘》은 지금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인데 그를 두고 벌어지는 중진인물들과 초선의원들사이의 아귀다툼이 단절시 레이다. 이번엔 새로 선출하는 당지도부가 내년엔 총과 함께 여러 선거를 총괄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것으로 하여 각 계파들이 저저마다 당권을 장악하려고 필사적으로 나서고있다고 한다.

중진인물들은 새 당대표의 중요한 임무가 선거관리인것만큼 선거경험이 풍부하고 당밖의 후보감들까지 포섭할수 있는 유력한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중진당대표론》을 주장하고있다. 반면 초선의원들은 이번 보충선거의 성과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룩된것이 아

니다. 구태정치인들로는 당혁신을 이룰수 없다. 당지도부에 계파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새 세대를 올려앉혀야 한다고 하면서 《젊은당대표론》을 떠들고있다. 얼마전에도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어느 한 장소에 모여 당대표선출행의 모호한 행동이 지도부선출을 위한 전대회 등의 절차에 장애물이 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퇴를 들고나왔다고 한다.

한편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일부는 당대표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있는 현재의 《단일지도부체》를 《집단지도체》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들고나오고있다.

이 기회에 우리도 한몫 보자는. 당지도부에 들고앉아 보자는 잔파가 깔려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남조선의 《뉴스1》을 비롯한 여러 언론들은 《재보궐선거후 《국민의힘》의 내부혼란이 점차 심화되는 모양새다. (우리가 잘해서 이긴것이 아니다.)라며 변화와 혁신의 길을 포기해선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다음기 당권경쟁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이런 목소리는 점차 호르지고있다.》고 보도

하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대대회를 놓고 저마다의 해법이 란무하고있다. 전대회에서 중진인원이 아닌 초선의원중에서 당대표가 선출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있다. 전대대회의 출마에 다수 초선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당권이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확산을 보이자 당안위에서의 우려도 커지고있다.》고 전하였다.

레코로 전대대회가 벌어지면 너희가 옳으나, 우리가 옳으나 하며 당권쟁탈을 위한 패거리싸움을 일삼는것이 바로 보수야당이다.

권력을 위해서는 상대를 가차없이 물어메쳐야 한다는 인식의 골수에 배긴자들로 열기설기 얽힌 《국민의힘》이 지금이라고 달라질수는 없는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에서 보충선거가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아웅다웅인가. 보수리념에도 문제가 있지만 《국민의힘》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면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국민의힘》은 해체되는것이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본사기자 한 복 순

통합을 둘러싼 대립과 마찰

남조선에서 보충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사이엔 통합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마찰이 커지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국민일보》는 《《국민의당》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의당》과 《국민의당》이 합당문제를 놓고 동상이몽을 이어가고있다. 《국민의당》에서는 흡수통합목소리가 커지고있고 《국민의당》은 당 대 통합을 양보할수 없다는 립장을 고수하고있다. 양측은 일단 서로의 내부의견수렴을 기다리겠다는 상황이지만 《국민의당》이 래년 대통령선거전까지 통합을 못 이루고 평행선을 달릴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한 《국민의당》 관계자는 의석수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국민의당》과 당 대 통합을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게 당내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민의당》이 국회의석수에서 압도적인 규모인만큼 소수당인 《국민의당》이 들어오는 모양새를 취하는게 자연스럽다는 말이다. 또 당내에서는 《국민의당》이 당 대 통합과정에서 지나친 지분을 요구할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흡수통합을 경계하면서 당 대 통합을 강조하고있다. 특

히 4.7보궐선거에서 저들의 공이 컸던만큼 양보할수 없다는 립장이다. 안대표가 야권단일화론에 불을 붙였고 선거운동기간 내내 적극적으로 《국민의당》 후보를 도왔다는것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흡수통합은 불가능한것이라며 《흡수통합의 정확한 의미도 모르겠다. 두 당이 합쳐져 되면 새로운 틀에 걸맞은 새로운 내용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흡수통합은 그냥 틀만 바꾸겠다는것 아니냐.》고 선을 그었다.

다른 언론도 《《국민의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여부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져들고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두 당이 통합문제에서 책임의 화살을 서로 상대방으로 날리고있다.》, 《《당대통령》 내부의견을 종합해 차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양측 내부에선 여전히 어려워졌다는 평이 대세다.》라고 전하였다.

보는것처럼 두 당이 벌려놓고있는 통합논의는 아무런 정당성이나 공동의 목적도 없이 오직 저 하나의 권력을 추구하는 시정배들의 더러운 정치홍정판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본사기자 전 명 진

《정치철학》의 가련한 처지

남조선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가 《국민의당》과의 합당문제로 고민에 빠져있다고 한다.

지난 보충선거에서 후보단일화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두 당이 합당을 해야 한다면서 부산을 피우더니 선거가 끝난 지금에도 이렇다할 전진을 보지 못해 공공대고 있다는것이다.

명색이 당대표라는 사람이 《야권통합》의 《대의명분》을 위해 보충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목이 쉬도록 떠들었지만 《국민의당》이 《국민의당》 대표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안철수가 자기들도 정당이 랍시고 《당 대 통합》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보충선거의 《승리》로 기고만장해진 《국민의당》에게는 그 소리가 가을 철 풀밭소리만큼도 들리지 않는다.

《102석의 제1야당》이 《3석짜리 군소정당》과 합

당한다는것은 체면에 어울리지 않으니 《국민의당》이 정 합당할 의사가 있다면 당을 깨고 《국민의당》에 들어오라는 립장이다.

보충선거때부터 《국민의당》 대표의 합당제의를 마뜩지 않게 여겨오던 《국민의당》의 강경파들은 합당 동의의 문제로 조그마한 정당에 휘둘리던 당자격을 흔들릴수 있다고 하면서 《절대불가》를 고집하고있다.

《국민의당》내부에서도 《합당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고 한다.

《중도실용》을 추구하는 《국민의당》이 보수정당과의 합당, 그것도 흡수통합형식은 절대로 있을수 없다는것이 당내 의원들의 주장이어서 합당을 외면하자니 《야권통합의 결렬됨》이라는 비난을 받기 쉽고 그대로 밀고나가자니 자기 당이 통채로 와해될것 같은 형국이라고 한다.

합당문제가 풀리려를 잃는 안철수의 지금의 처지를 표현한다면 개발의 도토리신세라

고 할지, 망들림에 끼운 보리알신세라고 할지.

겨우 명명한다는것이 《당내의 총본산론의 리를 하였다.》는 어정쩡한 소리다.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문제를 완강하게 밀고나가지 않는것은 전 검찰총장이거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인물들 등이 새로운 당을 내온다 어쩌다 끌려가려는것이 그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있는것 같다라는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어차피 돈도 정치기반도 미약한 그들이 종당에는 어느 정당과 손잡을것은 분명하니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국민의당》과의 합당문제를 내들어도 될것이라는 라산이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역시 《정치철학》로 소문난 인물의 속구구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런다고 권력을 위해서는, 저들의 리의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아랑곳하지 않는 권력자들이 그에게 순순히 앞자리를 내놓을리 만무하다.

하기에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국민의당》과 《국민의당》사이의 합당문제에 어두운 구름이 비졌다고 분석하면서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재편움직임속에서 존재감을 찾기는 어려울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리익에 따라 여기에도 불고 저기에도 불는 박쥐와 같은 존재, 권력을 쫓아 너털하게 돌아대는 《정치철학》의 가련한 처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남조선정국이다.

본사기자 김 정 혁

잠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조선사람의 피와 땀, 목숨으로 쌓아진 부전화언제

조선강점시기 일제는 대륙침략정책에 필요한 방대한 군수물자를 충당하기 위해 독점제벌들을 끌어들이 경제력약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가 조선에 대한 일본 자본의 대대적인 침투를 허용하자 일본의 독점제벌들은 북부조선과 동해안일대에 수많은 전기 화력, 군수공장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그중에는 일본의 신흥재벌 노구찌도 있었다. 일제의 신흥재벌 노구찌는 1925년초에 부전에 발전소를 건설할 흥미를 품고 조선총독 사이토와 공작을 벌리었다.

삼림자원과 물자원이 풍부한 부전에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노구찌의 편지를 받은 조선총독 사이토는 늑은 로동력을 얼마든지 사서 수력발전소공사를 시작하러, 대일본제국법이 그것을 보장할것임으로 안심하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적극 부추기었다.

노구찌가 부전에 발전소를

건설하려는것은 흥남지구에 세운 화학공장과 군수공장을 위해 필요한 전력을 보내주기 위해서였다.

조선총독 사이토로부터 부전고원에 인공호수를 건설하고 발전소를 건설할 특전을 받은 노구찌는 부전화언제공사에 달려들었다.

그러하여 태고의 밀원지대인 부전고원에는 측량기를 맨 일본인과 일제경찰들이 쏟아들기 시작하였다.

노구찌는 공사를 벌리면서 먼저 3만장의 《사망신고서》부터 인쇄하여 쌓아놓고 그것을 아무만지면 《이것이 부전화언제공사는 문제없다.》라고 떠벌이였다고 한다.

초보적인 로동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 위험한 작업장으로 조선로동자들이 내몰렸다.

로동자들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한 연제작업장에서 하루 16~19시간의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악독한 일제교형리들은 10명

밖에 잘수 없는 《합바》들에

로 나선자는 유리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그의 장모가 《300원대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했다.》는 구설이 나돌기도 하였고 장모가 30억원정도의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장모의 대리인은 구속되고 장모는 처벌받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

솔뚜쟁이를 열어보아야 밤인지 죽인지 알수 있다고 윤석열에 대한 자료 몇가지를 보면 리유를 대충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2012년 윤석열은 장모의 부동산투기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고소로 조사를 받았었다.

고소인은 윤석열의 장모와 같이 2003년 어느 한 건물에 대한 리익권을 분배하는 과정에 의견상으로 법정다툼을 벌려왔다고 한다.

민사사건으로 시작된 다툼이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져지면서 10년이 넘는 고소, 고발이 오고갔다고 한다. 하고 그의 부정부패행위가 무혐의처리되도록 변호사를 소개해준 의혹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도 당시 수천만원이 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

고 수사를 받던중 외국으로 도망쳤다가 체포된 그자의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처분했다고도 한다.

윤석열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면 검찰수사에도 개입했을것이라는게 당시의 여론이었다.

아니 댜 굴목에서 연기날수 없다.

니명을 요구한 경찰의 고위 관계자는 《그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감싸기》 행태를

가 재나 재나...

장모만이 아니라 윤석열의 처도 불법으로 재산을 불구어왔다고 한다.

2017년 1월 윤석열의 처가 어느 한 회사의 주식을 약 20억원정도 매입한적이 있는데 그가 상대적으로 주식을 싸게 사들인수 있었던것은 윤석열의 후배대문이라고 한다.

남조선의 한 언론사가 2019년에 입수한 문건에 의하면 윤석열은 자기와 막역한 사이인 후배검사의 친형으로부터 《골프잡매》를 받고 그의 부정부패행위가 무혐의처리되도록 변호사를 소개해준 의혹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도 당시 수천만원이 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

는 《공정》과 《정의》라는 것이 어떤것인가를 알수 있게 한다.

자기와 처가족속들의 부정행위를 수단을 다하여 가리우기 위한 《공정》이고 파면할수록 나오는 부패의혹덩어리들을 무마하기 위한 《정의》인것이다.

가해는 계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던가.

조상대대로 《부패백화점》, 《부패전시장》의 오명을 떨쳐온 《국민의당》이 저들과 똑같은 부패덩어리를 쉽게 알아본것이다.

《공정》과 《정의》라는 미사리구로 민심을 유혹하는 수법도, 권력을 휘둘러 제 욕심을 채우는 방법도 저들보다 더하면 더한 윤석열을 끌어당겨 저들의 정치적야망을 이루어보자는 속심도 있을것이다.

인물만으로 물어머를 잃는 《국민의당》이 부패로 불어 난 풍신같은 윤석열을 끌어당겨보려고 하지만 과연 수고있나 하겠는가.

제 처지도 모르고 누가 누구를 하는 정치판, 권력쟁탈전에 뛰어들려는 윤석열, 부패덩어리를 보배덩어리로 여기며 권력야망실현을 위해 댜 뛰는 《국민의당》, 다 같고 같은것들이라는것이 민심의 평이다.

본사기자 안 권 일



청춘래불사춘정 (청춘이여도 청춘같지 않아...)

노구찌가 부전에 발전소를

《경도공사에서 굴이 무

본사기자 주 광 일

현대적인 화초연구생산지

평양화초연구소는 현대적인 화초연구생산지이다. 연구소의 화초재배면적은 온실과 야외포장을 포함하여 수십만㎡이며 꽃생산량도 대단히 많다.

이곳에는 강력한 과학연구력량과 함께 화초연구와 재배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가 그치지 마련되어있다.

평양화초연구소의 터전은 온 나라에 백화가 만발하게 하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잡아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화초연구소에 거룩한 명도의 자욱을 아로새기셨다.

주제101(2012)년 9월 몸소 이곳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미적요구가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좋은 품종의 꽃들을 많이 피울데 대한 문제, 선인장을 비롯한 화초들을 많이 연구재배하고 생산할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평양화초연구소



최근년간 평양화초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꽃품종들을 국내기후후도에 순화시키며 생활력이 강하면서도 가정들에서 쉽게 재배할수 있는 화초들을 육종하기 위한 연구를 비롯하여 꽃생산과 과학화하는 데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아름다운 화초들을 생산하여 도시경관단위들에 보급하고 관상적가치가 큰 수십만송이의 꽃을 평양시안의 꽃방과 꽃매대들에 보내 주어 인민들에게 보다 문화정서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셨다.

본사기자 황금숙

어린 꽃망울들의 모습에서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품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선뜻 부모의 품이라든 대답할것이다.

자기를 낳아 주고 소중히 품어안아 키워주는 어머니, 아버지의 품이 야말로 가장 따뜻하고 정든 품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얼마전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는 이런 글이 실려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가족이 가장 무서운 존재이다.》 이 말이 생겨난 동기는 2021년 새해벽두부터 남조선 사회를 뒤흔친 정인사건이다. 세상에 태어난지 16개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생명이 양부모의 폭력으로 무참히 숨진 사건이다.

사람들은 첫 재판이 열린 날 법원앞에 걸려진 활짝 웃는 정인사건을 보며 분노를 느꼈다.

얼마나 천진난만한 웃음인가. 꽃잎처럼 예쁜 저 웃음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다니... 상상을 초월하는 아동학대범죄는 정인사건만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는 경상남도 창원군의 어느 한 가정에서 부모들의 모진 학대에 견딜수 없게 된 9살 난 딸이 아버지의 4층지붕을 통해 열점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구조당시 소녀는 눈에 멍이 들고 손과 발에 화상자

리는 물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고 한다. 소녀는 구조되기 전까지 하루에 한끼도 겨우 먹고 목에 걸린 쇠사슬에 의해 몸은 결박당해있었다고 한다.

지난해 6월에는 40대의 한 여성이 8살, 9살이 된 두 아들을 서울의 강서구에 있는 어느 한 야산에 갖다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올해에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젊은 부모가 태어난지 두주밖에 안된 아들이 자주 울고 먹는 우유를 토한다고 하여 마구 때려 무참히 죽인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아동학대건수는 2019년에 3만 40여건으로서 2015년에 비해 2.5배로 늘어났으며 하루평균 50명의 어린이가 학대를 받고 매달 2.6명이 죽는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것은 아동학대 및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50~70%가 친부모들이라는 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사람들속에서 부모의 품이 제일 따뜻하다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가족이 가장 무서운 존재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제2, 제3의 정인들이 늘어나고있는 사회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정인의 운명과 대조되는 한 어린이가 있다. 이름은 리국진, 기자가 그를 만났던 곳은 지난해 12월 평양에 있는 유류아동병원에서였다.

병원에 입원할 당시 국진은 안면신경은 물론 온몸이 마비되고 호흡하기도 힘들어하는 최중증상태였다고 한다. 진단은 척수종양가운데서도 경우가 매우 드문 두개척수이행부종양으로 내려졌다. 중앙이 큰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이 척수뿐 아니라 뇌수까지 침습해있는것이 더 큰 문제였다. 목을 조르만 돌려도 중앙이 뇌수를 건드리고 자러서 생명을 잃을수 있었다. 수술회의 의사협의회와 여러 중앙병원 신경외과전문의들과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드디어 수술이 진행되었다. 사소한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긴장한 수술이었다.

8시간에 걸치는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의료진들의 수술복은 땀으로 화려해졌지만 얼굴들에는 밝은 미소가 어려있었다. 성공이었다. 허나 그것이 전부 아니었다.

수술이 끝난 후 의료진들은 국진에 대한 집중치료에 달라붙었다. 국진은 이렇게 새 생명을 받아안았고 제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서게 되었다.

생사기에서 헤어나는 아들을 안고 유류아동병원에 들어섰던 국진의 어머니인 남포종합식품공장 로동자 차영심녀성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마음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우리 국진은 이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났습니다.》

극진한 정성과 사랑으로 사경에 처한 국진의 생명을 지켜낸 유류아동병원의 의료진들의 생애는 감동없는 들을수 없는 이야기였다.

정인이와 국진이! 너무도 판이한 두 어린이의 모습이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학대의 희생물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사라져가는 남조선의 현실과 한 어린이의 생명을 위해 많은 의료진들이 수십여일동안 정성을 바쳐주는 공화국의 현실은 다시금 새겨준다. 이 땅의 어린이들처럼 행복한 어린이들은 없다는것을.

본사기자 김준경

우리 靑靑, 우리 靑靑

영양가 높은 감자가루

량강도 삼지연시에 위치하고있는 삼지연감자가루공장은 년간 생산능력이 수천에 달하는 현대적인 감자가루공생산지이다.

이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감자가루는 영양쌀, 편튀기, 파배기, 국수, 우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맞춤형 영양가 높은 감자가루의 주원료이다.

공장에서는 신선한 감자를 세척, 탈피, 선별, 절편, 더운물처리, 령각, 익히기, 건조, 제분공정을 거쳐 감자가루로 만드는데 이 공정을 거쳐 나온 감자가루에는 탄수화물,



탄백질, 지방, 무기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탄수화물만 포함되었는 농마에 비해 영양가가 높다.

이렇게 생산된 감자가루는 오래동안 보관할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크다고 한다.

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 증기회수공정을 새롭게 창안제작하고 보일러의 효율을 높여 감자가루생산을 끌어올리는 등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과 새로운 기술혁신단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본사기자

그물우리양어의 덕을 본다

공화국에서 강과 호수가 많은 지역특성에 맞게 그물우리양어를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못이나 강, 호수, 저수지, 바다에 그물로 우리를 만들어 설치하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그물우리양어는 물보장에 필요한 양수동력설비가 필요없고 로력과 먹이를 절약하면서도 물고기생산량을 늘일수 있는것으로 하여 실리가 매우 큰것으로 인정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평양시와 평안남도, 자강도, 함경북도, 남포시를 비롯한 도처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물우리양어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에 특색있는 그물우리양어장들이 곳곳에 꾸려져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김영민 동대원그물우리양어사업소 소장의 말에 의하면 그물우리양어에서 다층양어방법을 받아들여 통정어, 잉어, 붕어를 비롯한 여러종의 물고기들을 집약화하여 길러 양어에서 효과성과 실리를 높여나가고있다고 한다.

이곳 사업소에서는 컴퓨터로 먹이공급과 조영, 물온도, 폐하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조종할수 있는 종합적인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알맞는 조건을 가진 수역으로 옮겨가면서 많은 물고기들을 기르고있다.

또한 자연먹이비중을 높이기 위해 어분과 집짐승똥을 비롯한 부산물로 펄화먹이를 만들어 리용하기도 하고 지렁이와 싸그쟁이식장을 꾸려놓고 필요한 단백질도 해결하고있다.

중체물을 부단히 높여나갔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물우리양어를 통하여 길러낸 많은 물고기를 육아원과 예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양로원과 상업망들에 보내주고있다.

강과 호수를 낀 곳마다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그물우리양어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다양하고 풍족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김혜성

인민의 새 나라를 세우시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두메산골 양명당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거기에서 몇몇의 학생들이 한데 몰려 서성거리고있었다. 그들에게로 다가가신 주석님께서 무엇을 하는가고 물으시었다.

함께 공부하는 동무가 앞산에 있는 학교에서 내려오지 않아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그리 높지 않은 산 중턱에 성벽으로 둘러싸여있는 학교건물을 한동안 바라보시었다.

양명성이라고 일러오는 그 성안에는 옛날부터 학교가 있었는데 마을에 새 학교를 지을 때까지 그 학교건물을 립시교사로 리용하고있었다. 그들은 모두 열매여섯살 나이는 이 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집이 멀어 혼자 멀어지면 갈수 없기때문에 공부까 끝난면 이렇게 서로 기다렸다가 모두 함께 가곤 하였던 것이다.

학생들의 말을 통하여 이러



세상을 둘러보면 민족음악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속에서도 우리의 민족음악은 순결하고 고상하며 아름다운것으로 하여 겨레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민족의 독특한 향취가 스며있는 민족음악이 현대적미감에 맞게 날아갈 발 전하고있다.

지혜롭고 재능있는 우리 선조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여러가지 민족악기 만들고 자기의 념원과 생활감정을 노래에 담아 부르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민족음악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얼마전 우리와 만난 김원균명평양음악대학 주체음악연구소 실장은 질세워위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민요를 비롯하여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여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민요를 비롯하여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여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민요를 비롯하여 민족음악을 적극 장려하여

아름답고 우아한 우리 민족음악

우리 민족악기들의 음색은 또 얼마나 독특한가. 가야금, 해금, 단소, 장세남을 비롯하여 오늘날에도 널리 장려되고 보존연구되고 있는 민족악기는 매우 많다.

우리 민족악기의 독특한 소리와 섬세한 기교는 그 어느 나라 악기들도 대신할수 없다.

로동당시대에 민족악기를 현대적으로 개량발전시키는 사업이 진행되어 민족악기의 우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민족악기계에 양악기를 배합한 주제적이며 독창적인 배합관현악기 탄생하게 되었다.

현대적으로 개량된 민족악기가 다시에 출현하고 만수대에술단과 국립민족예술단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을 끌어당긴다. 《우리 장단이 좋아》라는 노래도 있듯이 조선민요의 장단만큼 다양하고 특색있고 표현력이 풍부한 장단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민족악기들의 음색은 또 얼마나 독특한가. 가야금, 해금, 단소, 장세남을 비롯하여 오늘날에도 널리 장려되고 보존연구되고 있는 민족악기는 매우 많다.

우리 민족악기의 독특한 소리와 섬세한 기교는 그 어느 나라 악기들도 대신할수 없다.

로동당시대에 민족악기를 현대적으로 개량발전시키는 사업이 진행되어 민족악기의 우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민족악기계에 양악기를 배합한 주제적이며 독창적인 배합관현악기 탄생하게 되었다.

현대적으로 개량된 민족악기가 다시에 출현하고 만수대에술단과 국립민족예술단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여 그 우수성과 독특한 매력 이 널리 알려지게 되자 세상 사람들은 조선의 민족음악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것은 민족음악을 적

다. 시, 군정들에서 당선된 각지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예술소조원들이 참가하는 경연은 민족음악의 우수성과 특색을 잘 살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우리의 민요와 장단, 우리의 춤가락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로 되고있다.

겨레의 슬기와 넉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문화적보물 민족음악은 공화국에서 사회주의음악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한 귀중한 바탕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류현철



특별의 교육현장을 가다

분교에 대한 이야기 (2)

한 사업을 알게 되신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근심어린 안색으로 제일 먼데서 다니는 학생의 집이 여기서 몇리나 되는가고 다시 물으시었다.

그 물음에 한 학생이 아호비명일에서 다니는 동무도 있는 데 지리가 약 40리거량 된다고 말씀드렸다.

허리에 흰구름을 두르고 저 멀리 아득히 솟은 아호비명쪽으로 눈길을 주시체 40리나 되는 곳에 다닌단 말이지, 너무 멀거니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모르시던 위대한 주석님께서 계속 통화하는가, 비와 눈이 많이 오는 때는 어떻게 다니는가, 학교로 오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등을 하나하나 물으시었다.

기숙사가 없기때문에 계속 통학한다는것 그리고 장마철과 추운 겨울날에는 며칠씩 남의 집에서 기숙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것 등 학생들의 말을 다 들으신 주석님께서서는 정말 학교가 멀어 공부하기 힘들겠다고 걱정하시며 일군에게 앞으로 면소재지에는 중학교를 하나씩 내오도록 하고, 여기와 같이 산간지대에서 10리 이상 먼데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분교를 내오도록 하자고 뜨겁게 이야기 하시었다.

이어 주석님께서서는 학생들이 아침에는 날이 밝기 전에 집을 나서야 하고 저녁에는 밤이 깊어서야 돌아온다니 이렇게 해서는 학습할 시간도 없거니와 피곤해서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에게는 적당한 휴식도 주어야지 지나치게 부담을 주면 공부도 잘할수 없을뿐 아니라 한창 자라는 나이에 발육에도 지장이 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나라가 해방된

무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날 창창한 미래를 그려보았다.

분교! 참으로 그것은 중추처럼 시련이 가로놓였던 건국의 첫새벽에 그 누구도 생각할수 없었던 문제였다.

오직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천룡으로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만이 구상하시고 실현하시려는 뜨거우 사랑의 배움터였다.

그때부터 공화국에는 분교가 많이 생겨났으며 오늘날은 외진 섬마을이나 립산마을을 비롯하여 그 어디에나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면 사랑의 분교가 배움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반겨맞고있다.

안내원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나의 리에에 깊이 박힌 분교에 대한 생각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분교, 그것은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며 그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복속시키는 공화국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의 추도였다.

나는 이것을 후날 체험을 통하여 확인할수 있었다.

재중동모 김영란

참신한 형상, 세련된 기법의 소묘, 서예작품들

—대양절경축 전국소묘, 서예축전장을 찾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위치한 유류전시관에서 전국소묘, 서예축전이 진행되었다.

중앙과 지방의 전문작가들과 미술애호가들, 대학교 고교, 초급중학교, 소학교 학생들, 유치원어린이들이 출품한 다양한 소묘, 서예작품들이 전시된 축전장은 관람객들로 흥성거리었다.

참관자들은 《이민취원》, 《백두의 말발굽소리》, 《절세의 영웅》을 비롯한 서예작품들을 돌아보면서 주제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했다.

서예 《만경대갈림길》을 창작한 송준섭은 《백두밀밭

에서 강도 일제를 쳐부시던 나날 한시도 잊으신적 없으신 만경대고향집을 지척에 두고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찾아가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애민의 세계를 뜨겁게 새겨안으며 작품을 창작하였다.》고 말하였다.

무궁무진한 애국열인이 끊어놓는 백두전구를 찾고 또

찾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가리라 백두산으로》, 《백두산대학에서》, 《계승의 대오》를 비롯한 소묘작품들도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 나라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사상에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축전장에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

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공화국인민들의 드높은 기상을 힘있게 보여주는 《불을 다루는 사람들》, 《혁신의 하루》 등의 소묘작품들과 《자력부강》,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비롯한 서예작품들도 전시되어있었다.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가는 새 세대들의 모습을 형상한 소묘 《진솔》, 《시대의 꽃들》 그리고 소묘 《1만세대 건설장으로》, 《변영의 래일》과 같은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은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째 과업관철로 돌풍을 공화국의 벅찬 승격을 잘 보여준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서예 《우리것이 제일》, 《탐구전》, 《력동의 시대》와 소묘 《탐구》, 《밀거름》, 《자력갱생의 동음》 등 작품들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날에 날마다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인민들의 힘찬 투쟁모습을 힘있게 펼쳐와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었다.

참으로 다양한 주제의 소묘작품들, 명문장파 서정이 질서시구들을 세련된 붓질체로 형성한 서예작품들이 전시된 태양절경축 전국소묘, 서예축전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공화국인민들의 힘찬 진군을 고무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김진혁



농업성에서 나라의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가 은을 내도록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일꾼들, 농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에는 농작물생육에보조정보와 영농공정수행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에 대한 강의, 중앙과 지방의 유능한 농업부문을 과학자, 기술자, 대학교원들과의 질의응답, 현장에서 창조된 우수한 기술경험발표가 화상 및 동영상자료를 안반침하여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다.

이 봉사체계가 운영됨으로써 농업성에서 각 지역별, 부분별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환히 꿰뚫고 예찰해

행되고있다.

이 봉사체계가 운영됨으로써 농업성에서 각 지역별, 부분별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환히 꿰뚫고 예찰해

에 기초하여 올해농사실천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해결에 실질로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들을 부분별로, 영농공정별로, 작물별로 갖추어놓고

에서도 리론적인 문제들을 농업실천과정에 더욱 확증하고 세련시키고있으며 현실과 긴밀한 련계밑에 과학연구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농업성 일꾼들과 농업연구원의 과학자들은 계획작성과 자료준비에 힘을 들여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우리와 만난 김정룡 농업성 부국장은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를 통하여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과학농사에 다수확의 비결이 있다는 판점이 확고히 자리잡았다. 이 과정에 다수확농장, 다수확작업반, 다수확농민들의 대렬이 나날이 늘어나고있으며 나라의 농업과학기술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올해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신 각지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립광훈

은을 내는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

- 농업성에서 -

농업성에서 나라의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가 은을 내도록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일꾼들, 농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에는 농작물생육에보조정보와 영농공정수행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에 대한 강의, 중앙과 지방의 유능한 농업부문을 과학자, 기술자, 대학교원들과의 질의응답, 현장에서 창조된 우수한 기술경험발표가 화상 및 동영상자료를 안반침하여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다.

이 봉사체계가 운영됨으로써 농업성에서 각 지역별, 부분별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환히 꿰뚫고 예찰해

행되고있다.

이 봉사체계가 운영됨으로써 농업성에서 각 지역별, 부분별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환히 꿰뚫고 예찰해

에 기초하여 올해농사실천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해결에 실질로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들을 부분별로, 영농공정별로, 작물별로 갖추어놓고

에서도 리론적인 문제들을 농업실천과정에 더욱 확증하고 세련시키고있으며 현실과 긴밀한 련계밑에 과학연구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농업성 일꾼들과 농업연구원의 과학자들은 계획작성과 자료준비에 힘을 들여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우리와 만난 김정룡 농업성 부국장은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를 통하여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과학농사에 다수확의 비결이 있다는 판점이 확고히 자리잡았다. 이 과정에 다수확농장, 다수확작업반, 다수확농민들의 대렬이 나날이 늘어나고있으며 나라의 농업과학기술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올해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신 각지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립광훈



면밀한 계획밑에 보급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모든 영농공정들이 기술공정으로 확고히 전환되도록 적극 추동하고있다.

농업부문에서 과학농사열풍이 더욱 고조되면서 가입자로부터 영농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있다.

해당 단위에서 요청하는 문제들에 대한 여러가지 종합적인 기술자료들이 신속정확히 제공되는 집중자료봉사와 새로운 영농기술에 대한 강의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이 봉사체계를 활발히 운영하는 과정에 농업연구부문

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공화국인민들의 드높은 기상을 힘있게 보여주는 《불을 다루는 사람들》, 《혁신의 하루》 등의 소묘작품들과 《자력부강》,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비롯한 서예작품들도 전시되어있었다.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가는 새 세대들의 모습을 형상한 소묘 《진솔》, 《시대의 꽃들》 그리고 소묘 《1만세대 건설장으로》, 《변영의 래일》과 같은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은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째 과업관철로 돌풍을 공화국의 벅찬 승격을 잘 보여준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서예 《우리것이 제일》, 《탐구전》, 《력동의 시대》와 소묘 《탐구》, 《밀거름》, 《자력갱생의 동음》 등 작품들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날에 날마다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인민들의 힘찬 투쟁모습을 힘있게 펼쳐와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었다.

참으로 다양한 주제의 소묘작품들, 명문장파 서정이 질서시구들을 세련된 붓질체로 형성한 서예작품들이 전시된 태양절경축 전국소묘, 서예축전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공화국인민들의 힘찬 진군을 고무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김진혁



리금속은 통쾌한 득점장면들을 펼쳐보이며 축구전장을 종횡무진한 공화국의 이름있는 축구선수였다.

그는 경기장에 나서면 《너자축구의 별》, 《머리받기 명수》, 《득점왕》, 《에리한 비수》, 《불베의 주장》 등으로 불리우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경기장의 한끝에서 한끝으로 삼시에 상대방의 골문으로 날아들며 펼쳐는 리금속의 독특한 경기모습들을 볼 때마다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순간속도가 빠르고 득점 감각이 뛰어난 리금속이 공

격수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것은 4.25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한 때부터였다.

부단한 훈련속에서 그의 공처리능력과 득점기술은 눈에 띄게 높아졌으며 드디어 국제경기마다에서 땀만 공격수로서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13차 아시아너자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리금속은 15개의 득점을 하여 팀의 우승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이 대회에서 최고득점자로 선정되었다.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 너자축구경기에서 또다시 최고득점자로 선정된 그는 선

수생활기간 세계너자축구선수권대회, 아시아너자축구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120여차례 참가하여 100여개의 골을 넣었으며 그 과정에 아시아축구경기무대에서 3차례의 최고득점자상을 받았다.

그는 경기들마다에서 경기정황을 역전시키고 아슬아슬한 순간도 채지있게 넘기며 팀의 우승에 결정적기여를 하였다.

세계너자축구명수팀 공격수로 선발되어 경기에 참가한 전례도 있는 리금속은 인민체육인이다.

본사기자

본철에는 위 및 심이장재양, 만성표충성위염, 역류성식도염, 약물성간장염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위 및 심이장재양, 만성표충성위염, 역류성식도염, 약물성간장염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기온차이 등으로 인한 여러가지 조건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본철에 감기약과 진통제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약들은 식도와 위점막 등에 미란 또는 궤양이 쉽게

생기게 할수 있다.

본철에 소화기질병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다시마를 섭취하는것이 좋다. 다시마에는 궤양치료에 좋은 성분들이 아주 많다.

다시마를 여러 시간동안 우려 후에도 그 물을 자주

생기게 할수 있다.

본철에 소화기질병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다시마를 섭취하는것이 좋다. 다시마에는 궤양치료에 좋은 성분들이 아주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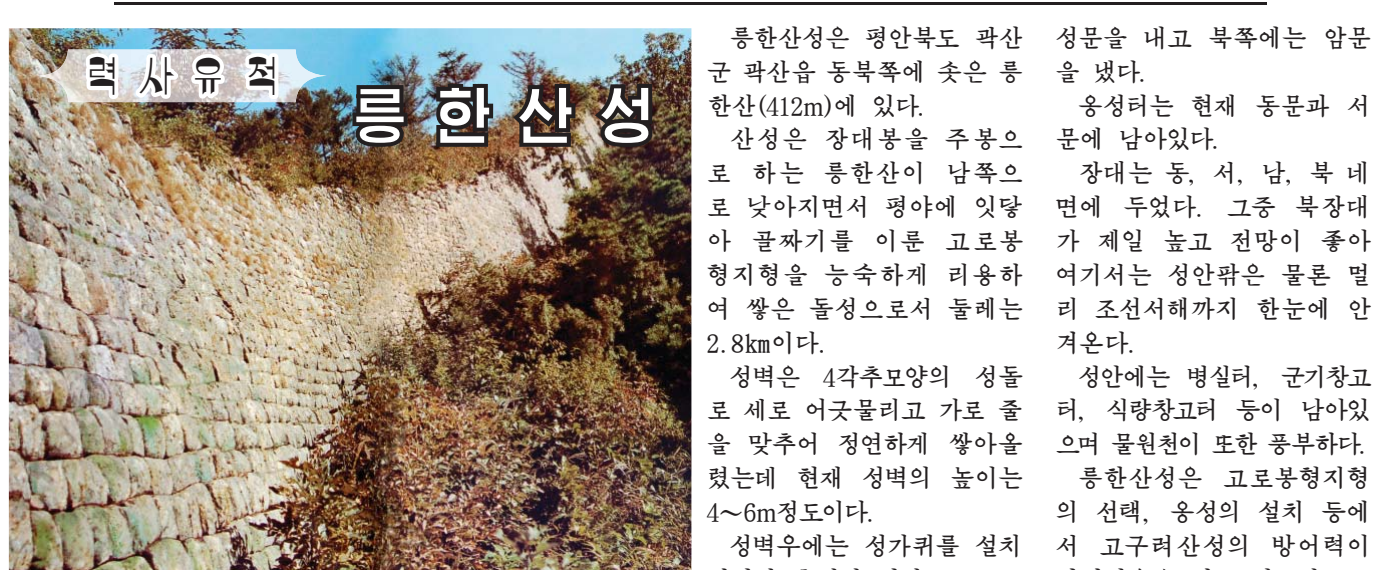
다시마를 여러 시간동안 우려 후에도 그 물을 자주

여마시면 궤양을 예방할수 있다.

위장관에 손상을 줄수 있는 아스피린, 졸론, 에스트로겐 등과 같은 약을 심중히 써야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흡연 등이 소화기질병을 더 악화시킨다는것을 잘 알고 건강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력사유적 흥한산성

흥한산성은 평안북도 파산군 파산읍 동북쪽에 솟은 흥한산(412m)에 있다.

산성은 장대봉을 주봉으로 하는 흥한산이 남쪽으로 낮아지면서 평야에 잇닿아 골짜기를 이루고로봉형지형을 능숙하게 리용하여 쌓은 돌성으로서 둘레는 2.8km이다.

성벽은 4각주모양의 성돌로 새로 어긋물리고 가로 줄을 맞추어 정연하게 쌓아올렸는데 현재 성벽의 높이는 4~6m정도이다.

성벽우에는 성가퀴를 설치하였던 흔적이 있다.

성의 동, 서, 남 세쪽에는

리우는 말수적고 침착한 백발의 중이었다. 고구려와 고구려문화의 남달리 숭상하는 사람으로서 담정일행에게 불편이 있을세라 처음부터 한결같이 극진한 정성을 보이는 모습이었다.

《담정대사, 기뻐하소서.》 주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있었다.

《기뻐하소서, 고구려에 쳐들어왔던 외적들이 가랑이같이 흩어졌다고 하나이다.》

너무도 기다려오던 소식이었으나 잘못 들은듯만싶었다.

《주지님, 확실한 소식이나 이까?》

담정은 화끈 달아오른 얼굴을 들고 저도 모르게 다시 한번 문고야말았다.

《확실하나이다. 백제로 갔던 우리 사찰의 중이 돌아왔소이다. 지난 칠월 스무나흘날에 고구려군사가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이튿날로 적의 무리는 빨빨이 흩어져 도망쳤다 하나이다. 지금 저반도 세 나라가 온통 기쁨으로 흥성거리고있다는 소식이 하나이다.》

《주지님, 감사하옵니다.》

담정은 두손을 합장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주지는 손목에 감긴 남주를 매만지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군사들이 전장에서 대고구려의 영예를 떨쳤으니 대

성문을 내고 북쪽에는 암문을 썼다.

웅성터는 현재 동문과 서문에 남아있다.

장대는 동, 서, 남, 북 네면에 두었다. 그중 북장대가 제일 높고 전망이 좋아 여기서는 성안밖은 물론 멀리 조선서해까지 한눈에 안겨온다.

성안에는 병실터, 군기창고터, 식량창고터 등이 남아있으며 물린천이 또한 풍부하다.

흥한산성은 고로봉형지형의 선택, 웅성의 설치 등에서 고구려산성의 방어력이 강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본사기자

성문을 내고 북쪽에는 암문을 썼다.

웅성터는 현재 동문과 서문에 남아있다.

장대는 동, 서, 남, 북 네면에 두었다. 그중 북장대가 제일 높고 전망이 좋아 여기서는 성안밖은 물론 멀리 조선서해까지 한눈에 안겨온다.

성안에는 병실터, 군기창고터, 식량창고터 등이 남아있으며 물린천이 또한 풍부하다.

흥한산성은 고로봉형지형의 선택, 웅성의 설치 등에서 고구려산성의 방어력이 강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본사기자

성문을 내고 북쪽에는 암문을 썼다.

웅성터는 현재 동문과 서문에 남아있다.

장대는 동, 서, 남, 북 네면에 두었다. 그중 북장대가 제일 높고 전망이 좋아 여기서는 성안밖은 물론 멀리 조선서해까지 한눈에 안겨온다.

성안에는 병실터, 군기창고터, 식량창고터 등이 남아있으며 물린천이 또한 풍부하다.

흥한산성은 고로봉형지형의 선택, 웅성의 설치 등에서 고구려산성의 방어력이 강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본사기자

사화

고구려화가 담정 (3)

글 리성덕, 그림 김윤일

...왜승들이 담정을 무섭게 쫓아오고있었다.

검은 장삼자락을 독수리 날개처럼 펼쳐거리며 달려드는 왜승들의 눈자위에는 살기가 이르고 입에서는 짐승의 소리같은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화풍으로 가장한 건달패!》

《승적에도 없는 거지중!》

담정은 온몸이 격분으로 불화르처럼 달아올랐다. 그러나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발광하는 왜승들을 지켜보고있었다.

금당안팎의 벽면을 바를 때부터 보아왔지만 암담하고 우매하기 짝이 없는 그들이었다. 《보래! 수사(풀이름)를 섞어 바르거라.》 하면 그저 허리를 감작거리며 《하이, 하이.》 했고 《아마와 풀을 섞어 바르거라.》, 《백토를 칠하거라.》 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알려주어야 할 바를 알던 그들이었다.

그러나 어느 틈에 그 강한 시기심과 아비하고 경박한 본심을 감출수 없어 이렇게 야료를 부리는 무리를 눈아래 굽어보는 담정의 마음

속에서는 울분과 수치의 세찬 물결이 흉수치고있었다.

온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솟고 가슴이 저리고 숨이 막혔다. ...

약물에서 깨어난 담정은 밖으로 나왔다. 아직도 곳곳에서 등불이 너울거리고 왜승들의 목탁소리와 불경읽는 소리가 도간도간 들려왔다.

밤하늘에서는 별들이 빛나고있었다.

북녘하늘에서 유독 빛나는 밝은 별, 꿈결에도 잊지 못하던 북극성!

그 별이었다.

저 별빛아래서 대고구려의 광대한 령토가 몸부림치며 침략자를 맞받아 일어섰으리라. 야, 부디 승전교를 울려주소서, 이역만리에서도 그 소리가 들려오게 크게 울려주소서. 부디 울려주소서. 비나이다.

담정이 가슴늘이로 쳐들어 합장한 손끝에서는 넘주가 별빛을 받아 알알이 반짝이고있었다.

그것은 불전을 향한 넘주가 아니라 조국을 위한 뜨거운 마음의 불꽃이었다.

...

이러한 밤들이 그 얼마를 지났는지 모른다.

온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솟고 가슴이 저리고 숨이 막혔다.

이때 누군가 담정의 등뒤로 조용히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비단으로 지은 가사자락이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날도 담정은 이미 정제해놓은 채색을 하나하나 검사하여낸 다음 금당안으로 들어와 흰 비단을 펼쳐놓은 듯 하얗게 빛나는, 아직 아무 그림도 없는 벽면에 마주했다.

장대한 체구가 벽면앞에서 못박힌듯이 굳어졌다.

스치는 가벼운 사르록소리가 들려왔다.

《담정대사!》

웃자락 스치는 소리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담정은 말없이 돌아섰다.

법통사 주지였다.

생불(살아있는 부처)라는 말로서 불교의 도를 깊이 닦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불